



LIVING GOD
RENEW AND
TRANSFORM US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Called to communion, committed to justice

여성 사전 모임에서 WCRC 총회에 보내는 메시지

살아계신 하나님 — 폭력이 만연한 세상에서 — 우리를 갱신하시고 변화시키소서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우리 개혁신교회 여성은 총회 전 2017년 6월 26-28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여성 사전 모임으로 모였다. 우리는 총회 주제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시고 변화시키소서”에 “폭력이 난무한 세상에서”라는 문구를 첨가했다. 교회와 세상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예를 들어, 경제/사회/생태/젠더 관련) 불의의 심각성은 모든 상황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들어본 무수한 여성들의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노래에서, 그리고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 여성이 교회와 사회에서 체험한 배제와 폭력에 대한 증거가 고통과 비통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는 전세계 여성과 소녀의 70% 이상에게 (인신 매매에 관한 UNODC 2014 보고서) 영향을 미치는 폭력의 재앙을 멈추라고 명한다. 영아 살인 - 여성 할례 - 어린 아내 - 명예 살인 - 배우자 폭력 - 인신 매매 - 성적 착취 - 강간 - 직장 성폭행 - 원주민 여성 실종 및 살해 - 여성 및 소녀들에 대한 HIV 성폭력 등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폭력 사례들이다.

우리는 대화 가운데서 2004년 아크라에서 세계개혁신교회연맹의 회원교회들이 "성별과 인종, 계급, 장애 또는 카스트와 같은, 올바른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형태의 불의를 거부한다."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전모임에서 공유한 이야기와 통계는 다양한 형태의 젠더기반 폭력으로 파괴된 삶과 관계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 이것들은 종종 인종과 계급, 장애, 연령, 카스트 및 성적체성의 교차에 의해 더 심각해진다.

우리 교회들은 우리 안의 이런 폭력을 인정하지 못함으로써 죄를 지으며 여성의 고통에 기여했다. 우리 사회내에서 폭력의 문화를 규범화한 지배 패턴들이 우리 교회의 구조와 우리의 성경 해석과 우리 신학 안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여성 사전모임을 마치면서 심각한 긴박감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삶과 의미가 억압당함으로써 매일 사그라지는 우리 자매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에게 가해지는 불의를 지적하면서 우리 개혁신교회 안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불의와 직접 대면하게 되었다. 2010 년 통합총회는 "여성안수를 장려하고 여성안수가 커뮤니티에 구속력을 발휘하는 때를 위해 일하기로"로 합의했다.



LIVING GOD
RENEW AND
TRANSFORM US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Called to communion, committed to justice

일부 교회들이 이 부름에 응답한 것에 대해 우리는 축하하지만, 더 많은 교단이 반응해야 한다.

지금은 *카이로스*의 순간이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여성안수에 대한 신앙선언문"을 채택할 때가 되었다. 이 선언문은 WCRC 교회들이 세례서약의 완성으로서 사역의 부름을 체험한 여성들을 안수사역으로 환영하도록 맹세하게 만든다(2017 통합총회, 워크북).

결론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신앙을 가진 우리 개혁주의 여성들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모든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에 헌신한다. 우리는 커뮤니언의 모든 지체가 우리와 함께 이 헌신에 동참하도록 권고한다.

우리는 앞서 말한 내용과 일치하게 다음 건의안을 제시한다.

커뮤니언이 젠더정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건의함.

- 이번 총회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죄라고 고백하도록 건의함.
- WCRC의 집행위원회와 총무는 2019년까지 교회와 사회 내의 젠더기반 폭력의 문제들을 묘사하는 젠더정의 정책을 개발하도록 건의함. 그 정책에는 WCRC 지역별협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정책이행과 책무지표를 위한 행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WCRC는 에큐메니칼 협력체들과 더불어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접촉하여 모든 유형의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대화와 대응을 갱신하도록 건의함.

커뮤니언이 동등한 협력관계, 즉 여성안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건의함

- WCRC가 "여성안수에 대한 신앙선언문"을 채택하도록 건의함.
- WCRC 실행위원회가 현재 여성안수를 주지 않는 회원교단들과 분별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건의함. 그 교단들은 2024년 차기 총회가 있기 전에 "여성안수에 대한 신앙선언문"의 서약을 실현할 수 있는 원리와 행동계획을 개발해야 한다.